인천일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코로나 대대적 합동방역

조혁신 | 승인 2021.05.19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이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방역에 나섰다.

공단 임직원 4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합동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 방제차량을 동원해 미추홀구청 운동장, 근린공원 산책코스 등지에 대해 소독약제를 살포하고 관내 5개 근린공원과 120여 개 공영주차장, 11개 공공청사 등에서도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혁신 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혁신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 시설물 합동방역 실시

뉴스일자: 2021년05월20일 19시19분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0여명이 공단 합동방역단을 구성하고 주요 시설물 합동방역을 실시했다.

공단 합동방역단은 대형 방제차량을 이용해 미추홀구청 운동장과 근린공원 산책코스에 소독약제를 뿌렸다. 근린공원 5개소와 12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변, 11개소의 외부 공공청사 등에도 방역을 실시했다.

성관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합동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cu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창닫기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 시설물 합동방역 실시

뉴스일자: 2021년05월20일 21시01분

[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0여명이 공단 합동방역단을 구성하고 주요 시설물 합동방역을 실시했다.

공단 합동방역단은 대형 방제차량을 이용해 미추홀구청 운동장과 근린공원 산책코스에 소독약제를 뿌렸다. 근린공원 5개소와 12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변, 11개소의 외부 공공청사 등에도 방역을 실시했다.

성관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합동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woman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창닫기

인쇄하기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 시설물 합동방역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일시 : 2021-05-20 12:48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미추홀구 시설물에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구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0여명이 공단 합동방역단을 구성하고 주요 시설물 합동방역을 실시했다.

공단 합동방역단은 대형 방제차량을 이용해 미추홀구청 운동장과 근린공원 산책코스에 소독약제를 뿌렸다. 근린공원 5개소와 12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변, 11개소의 외부 공공청사 등에도 방역을 실시했다.

성관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 속에

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합동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